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는 클락공항에서 좀 먼 위치에 있었지만 시내와는 가까워서 사야할 물품이 있었을때나 자유시간에 밖에 외출할 때는 편리했습니다. 기숙사는 3명에서 방을 같이 썼는데 방 크기는 3명에서 사용하기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 샤워호스가 고정되어있어서 씻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끔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아침마다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점심과 저녁을 매번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p> <p>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드 분들이 아침마다 방키를 열고서 들어오십니다. 토익스피킹 시험이 있는날이면 순서에 맞게 강의실에 가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안에서 쉴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방안에 키로 열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랄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남자 가드였기 때문에 방에 혼자 있을 상황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p>
수업	<p>수업은 토익스피킹 2번, reading 2번, voca 2번, Multi Media Class, Face to Face로 총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토익스피킹 같은 경우는 책을 위주로 충실히 진행되었고, MMC같은 경우는 광고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reading과 voca같은 경우는 책에 나오는 주제를 이용해서 프리토킹을 하거나 책 진도를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저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혹시 문법이 틀리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날때는 도움을 주면서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수업이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이해해주시고 재밌게 수업을 이끌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p>

필드트립	<p>Activity는 주말 activity랑 주중 activit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요트를 탔었고, MT. Samat에 갔다왔습니다. 원래는 3주차에 클락공항 근처에 있는 sm몰에 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활동이 있는 주말에는 영화를 보았고, 주중에 워터파크를 대신해서 갔다왔습니다. 주중 activity는 첫 주에는 getting to know를 하고 둘째주에는 group dynamic, 셋째주에는 draw&tell 넷째주에는 sport day를 하였습니다. 모든 activity를 하면서 추가비용을 낸 적은 없었고 준비물 또한 처음에 요트투어를 할 때 바다에서 수영할 사람은 수영복을 챙겨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활동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줘서 모든 활동들을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말 activity에서는 워터파크가 제일 재밌었고, 주중 activity에서는 sport day가 가장 재밌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여름날씨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매번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많이 탑니다. 다행히 우기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산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p> <p>낮에는 많이 덥지만 밤에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어서 얇은 가디건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p>
안전	<p>하버포인트나 sm몰이나 스타벅스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입구에 가드들이 서 있으면서 가방안에 흉기는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매번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있다면 주변에 가드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숙소	<p>숙소는 3명에서 쓰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원하면 틀 수 있고 숙소앞에 수영장도 있어서 원하면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샤워호스가 고정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편리했고 빨래와 방 청소를 주 3일을 해주셨습니다.</p> <p>여자방은 여자가 청소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자가 들어와서 청소를 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p> <p>밥은 한식으로 제공이 되고 전반적으로 맛은 괜찮았습니다. 메뉴가 엄청 다양하지 않아서 겹치는 식단이 종종 있었으나 항상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주시는 것 같아서 먹는 내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p> <p>주로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나가서 먹었는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p>

교통	라서 달라지지만 평균 한 식사당 200~300페소(한화5000~7500원) 정도 값이 나옵니다. 음식들도 전반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시내까지 걸어갈 수는 있지만 다소 거리가있기 때문에 택시나 FB를 타고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게되면 4명기준 100페소, FB같은 경우는 평균 10명정도에 200페소 정도 지불해서 탔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권, 유학허가증	690,000원	사전납부
4주간의 생활	350달러 (408,800원)	음식값, 생활용품, 필요물품 등에 지출.
합계	1,098,8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졸업식때 선생님들께 4주동안 감사했다고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줄 생각이라면 미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음식을 살려면 제 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를 팔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Fun Friday라고 테마를 정해서 옷을 입는데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옷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가 필요한데 필리핀에서 슬리퍼는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미리 챙겨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4주의 생활을 어떻게 버틸지 고민이었고 하루에 수업이 8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들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4주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또한 그 4주동안 잊지못할 좋은 기억들과 소중한 인연들을 맺은 것 같습니다. 4주생활 동안 영어실력이 부족 상승하진 않았지만 듣는 귀가 열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더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어학연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만약 한번 더 기회가 생긴다면 가고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요트투어



기숙사 수영장



Activity : Group dynamic



Fun Friday: pajama



워터파크



졸업식